불교상담 전화 활용법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땐…

수화기를 들어보세요

이선영(30 · 서울 이태원2동) 씨는 다른 사람들에게 "고민을 안고 산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이씨의 고민은 거의 가족으로부터 생긴 것이다.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건강이 안 좋은 어머니, 착하기만 하고 독립심 없는 언니…. 하루가 다르게 가족 중 누군가 사고를 치며 괴롭혔지만, 정작 이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심적 부담감에 대해서는 가족 누구도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 그래서 이씨는 가끔 생을 마감하고 싶은 극단적인 마음을 먹기도 했다.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창피해서 못하겠더라고요."

이씨는 사찰 도반의 추천으로 '자비의 전화'에 우선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기로 했다. 자비의 전화에서는 이씨에게 마음의 부담감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

요즘 이씨는 상담으로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느끼는 중이다. 그러면서 자신도 상담개발원 프로그램을 이수해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고 싶어 한다. 예전의 자신처럼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돕고 싶기 때문이다.

◆불교 상담이 뭔가요? =이씨의 경우처럼 상담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 답답함을 해소 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특히 부처님의 대기설법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는 불교상담은 동사섭(同事攝)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어 기존 상담의 주체-객체 이원화 한계를 극복할 모델로도 각광받고 있다.

최근 조계종 포교원과 상담개발원에서 포교를 위한 지침서 <불교상담 이렇게 합시다>라는 책자를 펴냈다. 이에 따르면 불교상담은 일반 상담의 목표인 '내담자의 생활과정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 · 행동 · 감정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위한 것(이장호)'이라는 것을 포함하되 '함께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불교가 깨달음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종교기 때문이다.

불교 수행법·경전 등 활용 삶의 중요한 지침 제공

불교대학 등 교육과정 이수하면 자격증 획득 가능

불교상담에서는 일반적인 상담기법에 간화선 위빠사나 염불 주력 절 등의 수행법을 두루 활용하고 있다. 불교 경전 역시 중요한 불교상담 자료다. 이런 불교수행법과 경전을 사용함으로써 삶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길러주게 된다.

현재 불교상담을 하고 있는 단체는 1990년 개설돼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불교상담개발원을 위시해 각 사찰 상담실까지 10곳 정도다. 가장 많은 상담원을 두고 있는 곳은 불교상담개발원으로 약 600여명의 상담봉사자가 배출됐고 월 평균 봉사자 수는 70여명이다.

불교상담개발원 권경희 사무총장은 "불교상담에서는 마음을 보는 것이 첫째로 중요하다"면서 "불교공부를 오래했다 하더라도 훈계만 늘어놓고 내담자의 상황에 맞지 않는 수행법 등을 제시해 주면 상담이 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불교상담 교육을 받으려면=불교상담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면 불교상담 관련 대학 강의를 들어야 한다. 일반 4년제 대학 상담관련 학위 소지자는 학위는 인정받을 수 있으나 불교대학 등을 통해 불교 기초 소양을 갖춰야 한다.

교육기관에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원(054-770-2114),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02-890-2800), 동방불교대학원대학교(02-745-2141), 대원불교대학교(02-707-1072), 부산 불교상담아카데미(051-633-5633), 광주불교문화대학(062-228-9098) 등이 있다.

불교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불자라면 불교상담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불교상담대학(02-737-8803)을 주목하자. 3월 12일 2008년 강의를 시작한다. 2년 4학기제로 운영되는 불교상담대학은 매주 수,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수업이 있다. 각 학기별로 발달심리학, 이상심리학 등 심리학의 여러 이론을 공부하고 집단심리상담, 상담 실습, 심리검사 등의 실습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자비의 전화를 통한 실질적인 상담 실습과 봉사활동도 함께 할 수 있다.

◆불교 상담을 받고 싶다면=상담 자체에 부담을 가지지 말자. 상담은 연령, 성별 등에 구애 받지 않으므로 편하게 생각해도 된다.

우선 불교상담개발원에서는 4가지 전문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 고민상담 전화인 '자비의 전화(02-737-1114)'와 성(性)고민을 전문으로 하는 사이버 성상담 '아하 섹스(www.ahsex.org)', 컴퓨터가 더 편한 사람들을 위한 '사이버상담 자비 24(www.jabi24.org)', 직접 심리상담실을 내방하는 전문상담이 있다. 또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구 자비의 전화(1588-5408)와 제주(064-713-7372) · 청주(043-266-2222) · 천안(041-575-2500) 자비의 전화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 불광사 바라밀상담실(02-422-6065)도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다. 종단이나 사찰에 소속돼 있지 않은 상담기관으로는 명상상담연구원(02-2236-5306)이 있으며 여기서는 마음바꾸기 명상치료, 고집멸도 명상상담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수련회식 프로그램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동사섭 수련회'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행복마을(055-962-1070)을 권할 만하다.

김강진 기자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 살고 싶어"

장학금 지원사업 나선 대구 법륜사 주지 지성 스님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나누려 했을 뿐인걸요."

교통도 불편한 대구 북구 사수동 법륜사. 하루 버스 4대가 지나갈 뿐인 이 사찰 주지 지성 스님(사진)이 연초부터 훈훈한 '나눔'으로 추운 날씨를 녹였다. 지성 스님이 1월 7일 2명의 대학생이 어려운 사정에 처해있음을 듣고는 각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것이다.

스님이 장학금을 전달한 학생들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음은 물론 심각한 가정폭력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학생들은 스님에게 장학금을 받으며 "세상에 도와주는 분도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희망도 보았다"며 다시 힘내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스님의 자비행은 사실 한 두해 일이 아니다. 그 동안 자신의 베푸는 삶을 내놓고 다니기 꺼려했으나 이번만큼은 불자들의 적극적인 추천에 의해 선행이 알려지게 됐다.

스님은 2004년 10월부터 지역의 어려운 어르신 100여분을 위해 무료급식을 시행해왔다. 매년 부처님 오신날에는 쌀 40kg들이 포대를 인근 20가구에 돌리기도 했다. 빠듯한 절 살림이지만 주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사정을 모른 척 할 수 없어 시작한 사업들이다.

"원래 노인복지를 하고 싶었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이웃들을 돌보지 못해 부끄러워요. 앞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회를 만들어 돕고 싶은 것이 제 꿈입니다."

김강진 기자

이천에 위치한 승가원 자비복지타운(원장 묘전) 사무실에서 몇 시간만 앉아있으면 김용진(42·사진) 사무국장이 누군지 금세 알 수 있다. 이곳 장애인 가족 '현주 언니(46 · 가명)'가 "국장님"을 입에 달고 살기 때문이다. 서글서글한 눈매가 인상적인 그는 현주 언니에게만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다. 원장 스님에게 신뢰받고 사회복지사들에게 존경받는 그는 조용하지만 힘 있게 불교사회복지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다.

⑩ 승가원자비복지타운 김용진 사무국장

"이웃과 공생하는 자비복지 실천"

김 국장은 사회복지법인 승가원과 뗄 수 없는 관계다. 15년 전 서울 삼전종합사회복지관에 입사한 이후 승가원 법인사무국과 성남 한솔종합사회복지관 등 승가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만 근무해왔다. 김 국장이 승가원과 첫 인연을 맺을 당시에는 불교사회복지관이 거의 없던 시절이었다.

"면접에 합격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불교인으로 불교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할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멋진 시작입니까. 늘 부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김 국장의 생활은 거의 자비복지타운 안에서 이뤄진다. 자비복지타운은 장애인생활시설로 현재 181명의 장애인 가족이 살고 있다.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고 서로 의지하는 관계. '가족'이라는 말에 부족함이 없다.

교육·환경단체 등 8곳에 기부 동참

"복지현장 담은 포토에세이집 내고파"

"가족들과 복지사가 서로 희망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 시설 내에서 생활하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의 '진짜 가족'들은 이렇게 떨어져 사는 김 국장에 대해 서운하지 않을까.

"한번은 아내와 아이들이 이웃집 친구들을 데리고 시설에 온 적이 있어요. 중증장애인실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갔지요.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아빠의 직업을 많이 이해해주더군요."

방문 이후, 그의 아내는 자비복지타운 후원 계좌를 2개나 더 늘렸다. 아이들도 덩달아 용돈을 아껴 후원금을 보내려 한다. 과연 사회복지사 가족들은 남다른 면이 있구나 싶다.

사실 김 국장은 기부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 그는 자신이 복지기관에서 일하고 있지만 또 다른 기관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불교복지 · 교육 · 환경 등과 관련된 단체 8곳에 기부를 하고 있다. 매년 한 계좌씩 더 기부할 계획인 김 국장은 올해 지구촌 난민을 위해서도 기부할 계획이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 늘 기부를 받지만, 저도 기부를 통해 또 다른 이웃을 생각하고 공생하는 자비복지를 실천하고 싶습니다."

'자타불이(自他不二)'. 나와 타인이 둘이 아니라는 정신을 그는 기부를 통해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작게는 승가원 가족들, 크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어져 살아가고 싶어 하는 김 국장이 현재 꿈꾸고 있는 계획이 있단다. 그것은 '사진'과 관련있다. 가족들의 생활과 변화를 기록하는 사진을 찍으며 그는 흐뭇한 마음이란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 자라는 모습을 찍어주고 정리하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이 좋습니다. 투정부리는 모습,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해 성장하는 모습도 뭉클합니다. 부처님 도량에서 스님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정리해 불교사회복지현장을 전하는 포토에세이집으로 내고 싶습니다."

글 · 사진=김강진 기자

예비승려의 교육의무화 책임교육기관! 한국불교의 미래가 東邦에서 시작됩니다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 2008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한국불교의 동량을 가꾸고 배출하기 26년! 전통불교문화가 여러분의 얼과 숨결로 승화되는 곳, 동방불교대학이 새로운 法緣을 기다립니다

■ 사정원칙 및 유의사항

1. 사정원칙
가. 불교학과 및 불교미술학과는 출가자(예비승려 포함)와 재가자 모두 응시가 가능하다.
나. 범패학과 및 승가학과는 사미(니)계를 수지한 예비승려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입학이 가능하다.
다. 불교학과 및 승가학과는 정규반과 통신반을 선택 지원할 수 있다.
라. 모든 학과의 신입생은 매년 학년입학을 원칙으로 한다.
마.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예비승려는 반드시 본교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구족계 수지자격이 주어지며, 구족계 수지와 함께 승려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본 종단이 인정하는 종립강원 등 불교관련 정규대학(4년제)을 졸업한 자는 본교 교육과정의 이수의무를 면제한다.
바. 마항의 예비승려가 본교에 입학하면 종비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소정의 종단장학금을 지원받는다.

2. 지원자 유의사항
가. 본교는 태고종 종도교육 전문기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인가여부와 무관하다.
나. 불교학과 및 승가학과 통신반은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통해 학습한다.
다. 본 종단 예비승려(사미 · 사미니)는 종단의 득도규정에 따라 재학 중 종단이 지정한 사미(니)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라. 승적증명서(타종단 포함)를 첨부하지 않거나 종단의 득도수계를 증명할 수 없는 자는 재학 중 삭발여부를 불문하고 승복을 착용할 수 없다.
마. 제출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
바. 인터넷으로 입학원서를 접수할 경우 전형료를 소정계좌로 입금해야 접수가 완료된다.
사. 승적증명서 또는 수계증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재가불자는 나머지 서류만 제출한다.
아. 필기 · 실기 · 면접고사에 결시한 자와 제출서류 대상자 중 서류 미제출자는 합격대상에서 제외한다.
자. 전형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야 한다.
차. 합격통보 후 정해진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합격을 취소한다.
카. 불법 및 부정행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자는 입학 이후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한다.
타.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절차에 따른다.

■ 모집인원 및 편제

학 과	모집인원	편 제	비 고
불교학과	000명	2년제	정규반/통신반
승가학과	000명	2년제	정규반/통신반
범패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불교미술학과	00명	3년제	정규반

■ 전형일정

구 분	날 짜	장 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07. 12. 24(월)~2008. 2. 12(화) 17:00	본교 교학처 · 인터넷 교부 · 접수 www.dongbang.org
서류심사 결과통지	2008. 2. 14(목) 14:00	개별통지 · 본교 홈페이지 www.dongbang.org
필기 · 실기 · 면접고사	2008. 2. 15(금) 10:00 ~ 17:00	본교 강의실 및 강당
합격자 발표	2008. 2. 18(월) 14:00	개별통지 · 본교 홈페이지 www.dongbang.org

지원자격 ※ 본교 지원자는 모든 학과 공히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 2. 1항의 자격미달인 경우 태고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 전형절차 및 방법
1. 1차 전형 : 서류심사 2. 2차 전형 : 필기 및 실기고사
3. 3차 전형 : 면접고사(인성 및 품행심사)
4. 2, 3차 전형방법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60점 이상 합격처리함

학 과	필기고사(불교상식)	실기고사	면 접	합 계
불교학과	40%(40점)	·	60%(60점)	100%(100점)
승가학과	40%(40점)	·	60%(60점)	100%(100점)
범패학과	10%(10점)	30%(30점) (반야심경/천수경 독송)	60%(60점)	100%(100점)
불교미술학과	10%(10점)	30%(30점) (시왕초 등긋기/소묘)	60%(60점)	100%(100점)

※불교상식 필기고사의 범위는 원서접수 때 별도로 고지함.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예비승려는 상기 전형고사를 모두 면제함.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학 과	제출서류	제출방법
공 통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사미(니) 수계증 사본 1부(해당자) 5. 승적증명서 1부(해당자) 6. 종단간부 추천서 1부(해당자) 7. 반명함판 사진 3매	1. 본교 교학처 직접 방문 및 우편 이용 또는 인터넷 접수 가능 2. 인터넷 원서교부 및 접수한 경우 원서를 출력해 사진부착 후 여타 제출서류와 함께 본교 교학처로 등기 발송 3. 접수처 : 120-150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49-1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 전형료
1. 불교학과/승가학과 : 50,000원 2. 범패학과/불교미술학과 : 60,000원

■ 학과운용 및 교육지표

○ 불교학과

학과운용	교육지표
1.모집대상은 출-재가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2.정규반과 통신반을 공히 함께 모집한다. 통신반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동영상 강의로 학습한다. 3.불교학의 기본교육(교리/사상/역사)을 비롯해 종학 등 대승교화종단의 위상을 담보하는 제반교육과 복지 등을 교수하며 기초불교의식을 지도한다. 4.부처님의 가르침을 논리적 ·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부처님의 회향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수한다.	1.지혜와 자비를 갖춘 불교적 인격을 함양하고, 인생과 세계를 바라보는 능력과 지식을 길러 대승보살불교를 구현하는 지도자로서의 기본자질을 갖추게 한다. 2. 불교사상이 현재와 미래사회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학문적 이론습득과 응용실천능력을 배양한다.

○ 범패학과

학과운용	교육지표
1.모집대상은 사미(니)계를 수지한 예비승려 이상인 자에 한한다. 2.불교신행 및 사찰운영에 필요한 각종 재의식 등 전통불교의식의 이론 · 실기를 겸수한다. 3.불교학의 기본교육과 종학 등 대승교화종단의 위상을 담보하는 제반교육과 복지 등을 교수한다.	1.전통불교문화의 전승과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기능인재를 발굴한다. 2.어산종장의 법맥계승과 대승보살사상의 실천능력을 배양한다.

○ 불교미술학과

학과운용	교육지표
1.모집대상은 출-재가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2.불모(佛母)로서의 교양을 함양할 수 있는 불교학의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미술전반의 이론과 불화 · 단청의 기초 · 실기를 배양한다. 3.종학 등 대승교화종단의 위상을 담보하는 제반교육과 복지 등을 교수한다.	1.불교미술 전반의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불모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다. 2.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과 제118호 불화장의 맥을 잇는 종단의 인재를 발굴한다.

○ 승가학과

학과운용	교육지표
1. 모집대상은 사미(니)계를 수지한 예비승려 이상인 자에 한한다. 2. 정규반과 통신반을 공히 함께 모집한다. 통신반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동영상 강의로 학습한다. 3. 내전의 주요과목을 이수하고 불교학의 기본교육(교리/사상/역사)을 비롯해 종학 등 대승교화종단의 위상을 담보하는 제반교육과 복지 등을 교수하며, 기초불교의식을 지도한다. 4. 부처님의 가르침을 논리적 ·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부처님의 회향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수한다.	1.현대사회는 물론 미래사회의 정신문화를 창조하이고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선적인 예지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2.부처님의 정신이념과 행동윤리를 현실구현할 수 있는 도제양성을 교육목표로 삼는다.

■ 등록금 납부
1. 납부기간 : 2008. 2. 18(월) ~ 2.22(금) 2. 납부계좌 : 농협 003-01-210227 동방대
3. 유의사항 가. 계좌입금 때 실명으로 입금요망(타인명의 입금 때 필히 전화요망).
나. 납부기간 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졸업특전
1.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예비승려가 본교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구족계 수지자격을 부여하고, 구족계 수지와 함께 승려증을 발급받는다.
2. 모든 학과 졸업생에게 태고종 2급 정포교사 자격증을 수여한다.
3. 범패학과 졸업생에게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에서 수료증을 수여한다.
4. 불교미술학과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국가고시) 등에 대비한 특강을 실시한다.
5.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혜택을 부여한다.

※ 자세한 모집요강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120-150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49-1
☎ TEL:(02)745-2030~2 FAX:(02)744-3461
홈페이지|www.dongbang.org